

광주시정 현안들 해결 긍정평가 끌어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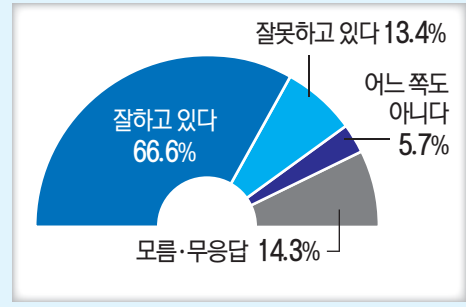
광주시장 직무 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 66.6%·부정 13.4%
출범 6개월 긍정평가보다 7.7%p ↑
광주형일자리 등 현안 추진력 반영

광주시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출범 14개월째를 맞은 민선 7기 이용섭 광주시장의 직무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등일보와 뉴시스 광주전남본부, 사랑방닷컴이 올 초(1월2일) 보도한 출범 6개월 여론조사 결과보다 긍정평가가 상승한 점이 눈에 띈다. 민선 7기 광주시 최대 현안인 광주형일자리 자동차공장 설립과 16년 갈등 현안 도시철도2호선 건설을 해결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무등일보와 뉴시스 광주전남본부, 사랑방닷컴이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갤럽(Gallup Korea)에 의뢰해 지난 5-6일 이틀간 광주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광주시장 직무수행 평가를 평가(표본오차 95% 신뢰수준 ±

■ 광주시장 직무수행 평가



4.4%p)한 결과, 광주시민 응답자 66.6%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13.4%였다. ‘어느 쪽도 아니다’가 5.7%, ‘모름/무응답’이 14.3%였다. 부정 평가와 ‘어느 쪽도 아니다’, ‘모름/무응답’을 감안하더라도 긍정 평가가 월등히 높았다. 특히 무등일보와 뉴시스 광주전남본부, 사랑방닷컴이 지난해 연말(12월27-28일) 한국갤럽에 의뢰해 1월2일자로 보도한 ‘신년 지역정치 현안공

동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p)’의 민선7기 출범 6개월 광주시장 직무수행 평가(‘잘하고 있다’ 58.9%)보다 긍정평가가 7.7%p 가장 상승했다. ‘건설하느냐마느냐’ 찬반 논란으로 16년을 끌여온 도시철도2호선이 최근 기공식을 갖고 2025년 완전개통을 목표로 대장정을 시작한 데다 광주형일자리 첫 모델인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연말 자동차공장 착공을 위해 속도를 내는 등 이용섭 시장의 현안사업 추진력이 긍정평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올 초 여론조사(신년 지역정치 현안공동)에서도 광주시민들은 이용섭 시장이 출범 6개월 동안 가장 잘한 점으로 ‘공론화를 통한 도시철도2호선 추진을, 가장 잘못된 시정으로는 ‘광주형일자리 협상 난항’을 꼽았었다. 성별로는 남성 응답자 68.0%가 광주시장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해 여성 긍정평가 65.3%보다 높았다. 올 초 여론조사에서는 여성(61.3%)이 남성(56.5%)보다 긍정평가가 높

았었는데 남성의 긍정평가가 6개월여 만에 11.5%p 급등해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도시철도2호선 건설과 ‘광주글로벌모터스’ 자동차공장 설립 등을 통한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에서 긍정평가가 78.3%로 가장 높았다. 19-29세 67.1%, 40대 62.8%, 50대 61.7%, 30대 59.9% 순이었다. 부정평가는 30대에서 21.7%로 가장 높았다. 50대 16.8%, 19-29세 10.5%가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동구의 긍정평가가 72.0%로 가장 높았고 이용섭 시장의 국회의원시절 지역구인 광산구 69.0%, 북구가 68.0%였다. 반면 부정평가는 서구 18.6%, 남구가 15.3%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젊은층과 전문직 종사자 거주자가 많은 남구는 모름/무응답 비율이 22.0%로 10%대인 다른 4개 자치구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대우기자 ksh430@srb.co.kr

전국 1위 ‘콘크리트 지지율’ 여전히 견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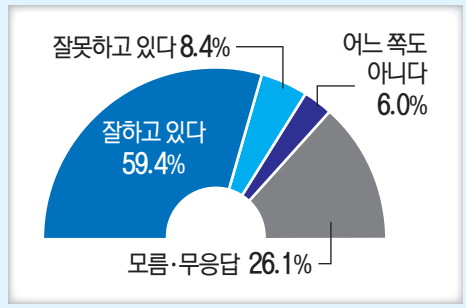
전남지사 직무수행 평가



도민 59.4% ‘잘하고 있다’ 평가
7조원대 국비·신성장 발판 반영
젊은층 50.9% 등 부동층 비율 높아

전남도민 10명 가운데 6명 정도가 출범 14개월째를 맞은 민선 7기 김영록 전남지사의 직무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7조원대 국비확보와 전남 미래 먹거리 ‘블루이코노미’ 등 신성장 사업 추진 발판을 마련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무등일보와 뉴시스 광주전남본부, 사랑방닷컴이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갤럽(Gallup Korea)에 의뢰해 지난 5-6일 이틀간 전남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전남지사 직무수행 평가를 평가(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p)한 결과, 전남도민 응답자 59.4%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8.4%였다. ‘어느 쪽도 아니다’가 6.0%, ‘모름/무응답’이 26.1%였다.

■ 전남지사 직무수행 평가



전국 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에서 김영록 지사가 유일하게 60%대 지지율로 줄곧 1위를 달렸던 것에 비하면 59.4% 긍정평가는 다소 낮은 감이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모름/무응답’이 26.1%로 지나치게 높다는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19-29세 젊은층의 모름/무응답은 무려 50.9%에 달했다. ‘모름/무응답’이 많다보니 전체적인 직무수행 긍정평가도 광주시장(66.6%)보다 낮게 나타났다.

다만, 무등일보와 뉴시스 광주전남본부, 사랑방닷컴이 지난해 연말(12월27-28일) 한국갤럽에 의뢰해 1월2일자로 보도한 ‘신년 지역정치 현안공동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3%p)’의 민선7기 출범 6개월 전남지사 직무수행 평가보다는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모두 개선됐다. 올 초 여론조사에서는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56.1%,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은 11.5%, ‘어느 쪽도 아니다’ 7.7%, ‘모름/무응답’이 24.7%였다. 지난 여론조사에 비해 무응답이 1.4%p 늘어난 가운데서도 긍정평가가 3.3%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3.1%p 개선됐다. 무너지지 않는 콘크리트 지지율에 따른 무관심과 고령화에 따른 보수적인 성향, 여론조사에 대한 응답 저조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성별로는 여성(60.1%)의 긍정평가가 남성(58.8%)보다 높았다. 올 초 여론조사에서는 남성(60.4%)이 여성(51.8%)보다 높았었다. 남성들의 긍정평가는 소폭 감소한 반면 여성들의

긍정평가가 8.3%p 상승했다. 연령대별로는 19-29세(38.0%)를 제외한 전 연령대(30대 61.3%, 40대 60.4%, 50대 66.2%, 60대 이상 63.2%)에서 60% 이상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부정평가는 30대(13.6%)와 40대(13.4%)가 타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모름/무응답이 50.9%에 달한 20대(19-29세)는 긍정평가도 38.0%로 낮았지만 부정평가 역시 2.9%로 가장 낮았다. 젊은 층의 도정에 대한 무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지역별로는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모두 광주인접 및 중부권에서 각각 63.8%와 10.8%로 가장 높았다. 군 공항 이전과 혁신도시발전기금, 나주 SRF(고형폐기물 열병합 발전소)를 둘러싼 시도간 갈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동부권은 긍정평가 55.1%, 부정평가 7.3%, 서부권은 긍정평가 62.3%, 부정평가가 8.2%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대우기자 ksh430@srb.co.kr

지지부진 군 공항이전 국방부 책임이 가장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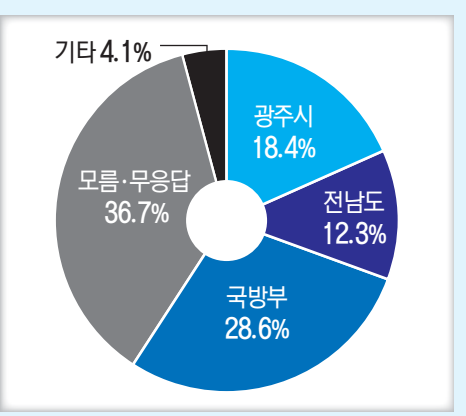
군공항 이전 지연

‘모름·무응답’ 많아 홍보 미흡
전남보다 광주시 적극 나서야

광주시와 전남도의 최대 상생현안인 군 공항 이전 사업이 국방부의 무관심과 시도간 입장차로 지지부진한 가운데 광주·전남 시도민들은 국방부가 사업 지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음 피해를 군 공항이전이 시급한 광주시민들에 비해 전남도민들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것으로 분석됐다. 무등일보와 뉴시스 광주전남본부, 사랑방닷컴

이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갤럽(Gallup Korea)에 의뢰해 지난 5-6일 이틀간 광주·전남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남녀 시·도민 1천3명(광주 503명·전남 500명)을 대상으로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 지연 책임 소재’를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28.6%가 국방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답했다. ‘광주시 책임이 크다’는 답변은 18.4%, ‘전남도의 책임이 크다’는 답변은 12.3%였다. 다만 ‘모름/무응답’이 36.7%로 월등히 높아 군 공항 이전 사업의 시도민들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전남도민들의 모름/무응답이 41.6%로 광주시민 모름/무응답 30.1%보다 높아 군 공항 이전에 대한 관심이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눈에 띄는 점은 광주·전남 시도민들이 국방부

■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 지연 책임 소재



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봤지만 광주시와 전남도의 책임소재만을 놓고 봤을 때는 양 시도민 모두 광주시의 책임이 크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광주시민들은 34.3%가 국방부 책임이 가장 크다고 답했고 뒤를 이어 모름/무응답 30.1%, 광주시 책임 17.2%, 전남도 책임 13.7% 등의 순이었다. 반면 전남도민들은 가장 많은 41.6%가 모름/무응답이었고 국방부 책임 24.3%, 광주시 책임 19.3%, 전남도 책임 11.2%였다. 시도민들의 모름/무응답 답변이 많고 전남도보다는 광주시 책임을 크다고 본 것은 군 공항 소음 피해를 직접적으로 겪고 있는 주민들 외에는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관심이 덜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대우기자 ksh430@srb.co.kr

어떻게 조사했나

추석 명절을 앞두고 무등일보와 뉴시스 광주전남본부, 사랑방닷컴은 공동으로 여론조사전문기관인 한국갤럽(Gallup Korea)에 의뢰해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지지 이유, 광주시장 직무수행 평가, 전남도지사 직무수행 평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의미, 지역구 국회의원 역할 수행 평가, 광주·전남 이해 대변 새 정당 등장 필요성, 새 정당 성공 위한 우선 사항, 자기 대통령 선출 인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 적절성, 한일 군사정보보호협력 종료 결정 평가,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 추진 지역 책임 소재 등에 대한 지역 민심을 알아 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5-6일간 광주·전남 시·도민 5천139명과 전화연결에 성공해 이 중 1천3명(광주 503명·전남 500명)이 설문을 완료, 응답률 19.5%를 기록했다. 유·무선 전화면접 조사로 유선 19%, 무선 81%를 합산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광주시장·전남도지사 직무수행 평가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다. 표본은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기수번호와 유선 RDD(무작위 생성 전화번호를 통한 임의의 결과) 표본 프레임에서 2019년 8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기준으로 성, 연령, 지역별 인구비례를 할당해 무작위 추출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륙하는 광주 군 공항 전투기.